| 현불 논단 |

복지 실습과 귀한 인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연초 학점은행 과정 등록해
사회복지사 2급 공부 시작
관념적인 복지 이해에 반성

120시간 복지 현장 실습서
현장의 어려움 인식하게 돼

어려운 곳 살피는 복지사들
마음 따뜻해지는 귀한 사람

연초에 사회복지사2급 학점은행과정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왔다. 기왕에 본사의 사회복지법인에 상임이사의 일을 보고 있었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침 종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무원 중에 지난해 학점은행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 자문을 받았다.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이해가 많았나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다. 강의듣기와 보고서제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꾸준히 잘 공부해내었다는 기쁨이 남았다.

문제는 사회복지실습 과정이었다. 시간으로 120시간을 온전히 채워야 했다. 하루 8시간씩 하면 15일이다. 마침 잘 아는 비구니스님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 상담을 했더니 본인이 일하는 복지관에서 실습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불교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고 자기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10월 초부터 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일정을 조정하였다. 본사와 종단 등 중요한 행사나 회의가 있는 날은 빼고, 주말을 제외하고 날을 잡아보니 10월 말까지면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구니스님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나의 실습을 맡겼다. 내 입장에서도 오히려 제대로 실습을 할 수 있는 맘 편하고 좋은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는 실습생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기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습생을 받으면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가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찌보면 많은 혜택과 배려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무척 고마운 일이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복지관 직원들의 일상은 상당히 바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로 인해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많이 써야 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 지방의 작은 도시 복지관에서 한 달 가까운 실습기간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현실과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지역과 인근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복지관에서 일하며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늙어온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보다 나은 복지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직원과 현장에 나갔을 때 여성 직원들이 전자장비를 자연스럽게 설치하고 조정하며, 좁은 농로를 여유 있게 후진하며 운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자 "사회복지사는 누구든 승합차 운전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담담한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실습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자주 접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이름도 다 기억하고 친근함이 많이 형성되었다. 복지관에서 자주 만난 어르신들과 관장 스님은 실습이 끝나더라도 다시 오라고 말씀하곤 한다.

'잊지 않고 자주 오리라' 생각을 다져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탄소발자국 줄이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나는 매일 출퇴근길에 카레이서처럼 차를 달렸다. 출근길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침 회의 시간에 맞추려고, 퇴근길엔 하원한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달렸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퇴근길은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지만 그 때의 습관이 좀체 사라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지구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환경 칼럼을 쓰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하고 질책해도 어쩔 수 없다. 차가 없다면 나의 여건상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엄청난 양의 탄소발자국을 지구에 남기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생활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요인은 출퇴근 교통수단이니 출퇴근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자가용 사용자로서 나도 지구에게 엄청나게 미안하다.

이처럼 탄소발자국은 생활의 전 영역에서 남는다. 요즘 식당에서 컵 대신 사용되는 종이컵 하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일까? "저는 종이컵입니다. 몸무게는 고작 5g이지만 탄소발자국은 11g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종이컵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다. 종이컵은 몸무게보다 두 배는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132,000톤에 달하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 4,725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컵을 분해하는 데 20년이 걸린다. 내가 쓴 종이컵은 쓰레기통에 버려진지 오래지만 11g의 어두운 탄소발자국은 지구에 그대로 남겨진 것이다. 탄소발자국이 많아질수록 오존층은 얇아지고 기후 온난화를 불러온다. 오늘 내가 한 잔의 커피나 물을 마시기 위해 무심코 사용한 종이컵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 끼치는 종이컵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종이컵으로 가던 손이 머그컵이나 텀블러로 향하지 않을까? 설거지가 번거롭다고 종이컵을 내놓으려다 유리컵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방법은 없다. 발을 내디뎌 걷는 내 행위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고 있고, 휴대폰, 과자 한 봉지, 컴퓨터, TV 등 모든 것이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면 줄이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차선책이 최선책이니 순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전등은 끄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하루 내가 남긴 탄소발자국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걸 잊지 않고 일상의 사소한 불편을 감수해 나갈 때 그것들이 모여 변화가 되고 지구를 위하는 우주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뒤에 남는 탄소발자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이 글 역시 종이에 인쇄되어 나오기까지도 탄소발자국을 남기니 지구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빚을 조금은 탕감 받을 것 같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동북아평화, 불교가 마중물 되길

정치 ·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종교를 통한 민간교류가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는 현재 여기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상황을 풀어가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서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학술적으로는 공감능력 배양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먼저 한국불교 주요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 30일 중국 광동성 주해시 보타사에서 열린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 참가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3국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3국 불교도는 선교방편의 지혜로 모든 이들이 원한을 풀고 차별을 없애며 분쟁을 봉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큰 틀에서 볼 때 세부적인 한일관계가 언급되진 않았으나, 이는 각국의 정부를 향한 불교도들의 준엄한 외침으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계종 교육원은 교육아사리회와 '발전적 한일관계에 대한 불교적 제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코삼비 사건에서 설한 6가지 화합 방법을 갈등의 해법으로 조명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선 교육분야서 '증오'가 아닌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지만 그 어느 종교보다도 평화와 화합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가장 엄중하게 벌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이 뜻을 모아 각국의 갈등상황을 타개하는 마중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대학 포교, 니즈 파악부터

대불련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이 10월 30일 캠퍼스 포교 일환으로 전개하는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중 하나로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4개 대학에 이어 올해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올해 각 대학 불교동아리 포교 현장에서는 신입생 급증이란 희소식이 날아왔다. 다양한 대학 포교 전략과 함께 템플스테이, 명상 등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신입생들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우려의 대부분은 불교동아리 활동의 터전이 되는 동아리방이 노후했다는 것에 있었다. 예전에 만들어진 불교동아리방의 경우 불단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곳이 태반이다. 사실상 동아리방이 아닌 법당의 역할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동아리방이 현재 대부분이다.

불교동아리에 대한 불자학생들의 니즈가 단순한 신행활동이 아닌 불교기점으로 학생들이 모여 스터디, 여행, 상담 등을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변한 상황에서 동아리방의 변화가 절실하다.

다행히 대불련총동문회 측에서 사업을 통해 매년 2~4군데씩 동아리방을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대불련총동문회 측에서도 사업 확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리모델링 한 건당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신입생들이 대폭 늘어나는 현재 마중물로 이들을 위한 터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대불련에 대한 종단 지원은 예전만 못하다는데 있다. 포교에는 전반적인 진흥과 함께 거점, 특수분야 포교 또한 이어져야 한다. 대학포교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불련, 특히 대불련 불교동아리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